

II. 기획의도

1. '한민족은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는 말을 여실히 증명해 주듯이 대중음악에 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열린 음악회' 등으로 대표되는 공중파 방송의 기존 프로그램들은 단발적 흥미와 인기에 편승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수박겉핥기'에 머물게 하고 있다.
2. 물론 CATV-음악채널과 일부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정보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만 채널이 가진 한계와 명료한 기획의 부재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감상법이나 음악적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3. 개별 프로그램마다 명확한 타겟오디언스(TARGET AUDIENCE)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자랑하는 E방송사의 편성표(TV)에도 대중음악에 관한 정보프로그램은 빠져있다. 교양, 드라마, 쇼 등 현행 방송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전히 틈새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4. 날로 증대되는 시청자들의 대중음악에 관한 욕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국민의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존재하는 E방송사의 존립이 유를 더 공고히 하게 위해서도 대중음악에 관한 정보프로그램의 편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III. 제작방향

1. 흥미와 인기에 초점을 둔 기존의 프로그램과 달리 대중음악에 관한 정보제공에 주안점을 두어 타방송사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도록 한다.
2.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20-30대를 주시청자로 하여 대중음악 전반에 걸친 모든 장르를 소개함으로써 음악적 이해를 높인다. 단 시청영역 확대를 위해 너무 전문적인 아이템은 피하고, 평소 많이 들어본 장르